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가족인식 연구*

김 인 숙

(가톨릭대학교)

유 영 준

(가톨릭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와 가족을 돕고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가족인식을 비교한 연구이다. 또한 가족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써 인구사회학적인 요인, 원가족에 대한 인식, 자기효능감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가족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134명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131명을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통한 서베이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가족개념, 가족주의, 남녀평등의식에 있어서 두 집단간 비교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가족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클라이언트에게는 연령과 원가족에 대한 인식이었으며, 사회복지사는 성별과 자기효능감이 가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인식에 대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사회복지사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클라이언트와 가족주의에 대한 차이는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가족가치, 가족집단주의, 가족내 성별 역할분담에 차이를 가질 수 있음도 예측할 수 있었으며, 사회복지사간에도 성별에 따라 가족인식에 차이를 미칠 수 있음으로 사회복지 교육에 있어서 성인지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가족인식, 가족개념, 가족주의, 성평등의식

1. 문제제기

최근 가족의 문제가 정치적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는데(이진숙, 2003; 김인숙, 2003a), 그 배경에는

* 이 연구는 2003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이혼율과 저출산의 문제로 집약되는 “가족의 위기”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사실, 현재의 가족위기가 진정 “위기”인가 아니면 “변화 혹은 재구조화”인가에 대한 논란¹⁾(임인숙, 1999)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종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가족이 조형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변화와 재구조화의 의미를 포함한 “위기”로 인식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 같다. 가족형태의 다양화는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사회의 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장혜경, 2001), 특히 인구구성의 변화로 인한 출산율의 저하, 노인인구의 증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이혼에 대한 인식 및 태도변화, 남녀 성 역할에 대한 인식전환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김미숙 외, 2002 ; Drew, 1998). 따라서, 이 때 말하는 “위기”란 “가족위기론자들”이 말하는 전통적 가족의 붕괴를 안타까워하면서 전통적 가족으로의 회귀의 필요성을 외치는 그런 “위기”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필연적 변화과정에서 보여지는 “위기”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족위기”의 실체는 가족관념의 위기, 가족노동력의 위기, 가족의 물질·경제적 기반의 위기로 구체화할 수 있다. 가족관념의 위기는 이혼가족이나 “기러기아빠” 가족에서와 같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가족상의 해체에 대한 위기감(조홍식 외, 2002; 임인숙, 1999; 김현옥, 2002; 양옥경, 2001)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족 그 자체가 위기라기보다는 가족이 변화하고 재구조화되는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관념 자체가 붕괴되고 해체되는데 사람들은 이를 위기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가족노동력의 위기란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므로 인해 가족이 제공했던 국가의 노동력 공급이라는 역할에 이상이 초래되면서 갖게되는 가족의 위기이다. 그리고 가족의 물질·경제적 기반의 위기는 오늘날 가족위기의 한 배경이 되고 있는 경제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지배로 인해 야기되는 가족생활 기반의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대두되는 가족현상으로서 “가족 동반자살”과 같은 생계형 가족해체를 포함한 가족의 위기이다.

이처럼 “가족위기”라는 새로운 현상과 언어가 우리의 생활현실을 감싸고 있는 현실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가족을 돕고 지원하는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가족을 새로이 인식하고 정리해야 할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가족이 지속적으로 다양화되면서, 전통적인 가족주의나 가족이데올로기, 가족의 영향력 등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유계숙·유영주, 2002; 김병찬, 1995; 김현옥, 2002; 양옥경·김혜영, 2001; 양옥경, 2001; 이광규, 1994), 사회복지사는 변화하는 가족관념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또 서비스를 제공받는 클라이언트들이 가진 가족관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의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가족위기”는 가족을 돕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새로운 역할과 관점,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에 다양한 실천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사회복지사들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과 관점, 접근을 시사받을 수 있기 위한 가장 기초적 작업으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과연 가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또 그러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1) 가족변화에 대한 관점에 따라 가족쇠퇴론과 가족진보론은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가족위기론자들은 현대사회의 개인주의화 경향과 가족제도의 통제력 상실 등을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보며, 가족진보론자들은 다원주의가 표현되는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가족인식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두 집단의 가족인식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실천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양 집단의 가족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실천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2. 이론적 배경

1) 가족인식의 개념

사람들이 가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다차원의 단일 개념은 아직 부재하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몇 개의 개념이 존재하는데, 그들은 가족개념, 가족주의, 가족내 남녀평등의식이 그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가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개념, 가족주의, 남녀평등의식을 그 주요 구성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가족개념(family concept)은 가족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가족개념은 정의내리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가족은 사회적으로 상호상반된 전제하에 규정되며,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역사성과 정치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가족에 대한 서로 상이한 이론적 관점들이 존재하기(김경신 외, 1993) 때문이다. 사회적 맥락에서 다양한 가족개념에 대한 파악은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빠른 변화로 가족에 대한 정의는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변화되는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김현옥, 2002). 가족의 다양화를 가족의 해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가족의 정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인가를 놓고 볼 때 향후에는 지금보다는 더 다양한 가족이 존재할 것이라는 데에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의 변화를 정상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가족이라는 경계를 긋는 것은 어려워 질 것이며, 가족개념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도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이, 정형화보다는 유연화가, 규칙과 규율의 적용보다는 정서와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가족기능이 부각되고 있다(김미숙 외, 2002; 양옥경, 2000).

그러나 가족개념은 구성적 측면으로만 볼 수 없고 가족의 기능이라는 차원에서도 접근되어야 한다. 박민자(1995)는 가족에 대한 개념과 의미는 구성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가족에 대한 기능적 의미는 가족이 개인과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의 기능은 성행위와 출산 통제의 기능, 자녀 재생산 및 자녀양육과 사회화 기능, 경제공동체 기능, 정서적 유대 및 여가기능, 사회보장 기능, 지위계승 기능, 성역할의 사회화 기능, 가사노동의 기능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9: 65). 이처럼 가족개념에 대한 논의는 구성적 의미에서 가족의 형태와 범주를 중심으로(김규원, 1995; 유계숙·유영주, 2002; 하은하,

2001; 양옥경, 2001), 기능적 의미에서는 가족의 핵심 역할에 대한 수용성의 정도(양옥경·김혜영, 2001; 유계숙·유영주, 한남제, 1987)가 그 논의의 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족개념을 가족의 범주와 형태에 대한 수용도를 중심으로 보는 범주적 가족개념과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한 기능적 가족개념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가족주의(familism)는 “가족으로 대표되는 친족집단의 이익을 집단의 구성원인 개인의 이익 상위에 놓는 가치관과 이에 준하는 행동양식”(이광규, 1990)이다. 이러한 가족주의는 다양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의식과 뚜렷이 경계를 구분하기도 매우 어렵다. 가족은 전체 사회구조와 연관되어 있고, 사회의식과의 상호관계를 맺으며 형성, 변화, 지속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권위주의, 집단주의, 가부장제 등은 가족주의 의식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다(김혜영, 2002).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의식은 집합주의적 이념이 강하고, 가족구성원이 한 개인으로 존재하기에 앞서 가족의 한 성원으로 행동하기를 강요받아 왔다. 따라서 개인은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어렵고 세대간 위계질서에 기초한 부계혈통 혈연중심의 가족간 연대가 강조되어 왔다(최재석, 1975; 양옥경, 2001)

가족주의를 구성하는 개념들은 가족우선성을 기본으로 하고, 가족 우선성에 의하여 부계중심성과 부계가문의 발전이 지속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가족단위 안에서 최고 세대인 부모를 공경하며, 가족 내 인간관계의 질서를 확립하며, 형제자매와 친척관계까지 이를 확대하여 이들 간에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옥선화, 1989). 이외에도 가족주의의 구성요소를 내적요소와 외적요소로 구분하여 내적 요소에 “가족집단 중심주의”, “가족경계 유지의식”, “가부장적 요소”를 포함하기도 한다(김현옥, 2002). 여기서 “가족집단 중심주의적 요소”는 가족을 하나의 전체로서 사고하고 가족전체를 위해 가족원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며 가족 전체의 명예를 개인의 명예로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가족경계 유지의식”은 가족과 가족외부를 분명히 경계짓는 요소이고, “가부장적 요소”는 부계혈통과 남성중심적 의식의 측면을 가리킨다. 이처럼 가족주의는 구체적인 가족을 대상으로 생성, 발전하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가족주의는 단일한 측면에서 설명하기 어렵고, 가족주의의 구성요소에 대한 고려와 함께 이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셋째, 가족내 남녀평등의식은 가족에 대한 인식의 한 측면을 볼 수 있는 주요 개념이다. 남녀평등의식은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 안에서 양성이 동등한 권한과 성취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개념에 의하면 남녀평등의식에 위배되는 노동조건과 가정에서의 가사노동의 전담 등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파악될 수 있다(장하경·서병숙, 1991). 나아가 Wilson(1977)에 의하면 남녀평등의식은 국가가 어떻게 여성성을 정의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녀평등주의에 대한 정의도 다차원적인데, 성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능력, 속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고,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반하는 차별적인 행동을 승인, 채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 등을 포함한다(김양희, 정경아, 1999). 1970년대 초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이 경험하는 가정생활의 조건들을 개선하여 성평등을 추구하면서 ‘가사노동의 사회화, 유급 모성휴가, 적절한 공동육아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가정생활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모두 노동시장과 공적생활에 대한 평등의 개념을 강조한 것이다(Kath Woodward, 1997). 남녀평등의식은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가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반영하며, 가족주의나 가부장제의식과 상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가족인식의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는 가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가족인식 개념의 구성요소인 가족개념, 가족주의, 남녀평등의식과 관련하여 이들과 관계가 있거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가족인식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견되는 요인은 크게 인구사회학적 요인, 자기효능감, 원가족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세 가지 개념이 가족인식과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이들 요인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이다. 기존연구에서 가족인식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유형, 종교, 소득수준(이영숙·박경란, 2001; 유영주, 2002; 박수현 2003, 옥선화, 1989; 신수진, 1998), 혼인여부, 가족관계, 개인의 사회경제적 위치(Smith and Graham, 1995); 김현옥, 2002; 이옥, 1996)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가족의식 평균비교를 실시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성별, 연령, 혼인여부를 사용하였다.

둘째, 자기효능감(self efficacy)이다. 자기효능감은 단순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바를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사건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자신감, 자아존중감, 자아개념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족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이 특정행동을 선택할 때 자기효능감은 특정행동의 선택, 과제해결을 위한 노력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기효능감과 가족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는 자기효능감이 강한 경우 가족과 자신을 효과적으로 분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전통적 가족주의라는 보수적 인식과 상반된 입장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가족주의가 강한 가족의 결혼생활은 원가족을 통하여 자율성을 학습하지 못하였거나 독립된 성인으로서 개인적 발달을 이루지 못했을 때 양가로부터의 영향에 대처하기 어렵다(최현미, 1997)는 면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족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원가족에 대한 인식은 가족치료나 가족상담시 클라이언트의 확대가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도구로써 활용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원가족에 대한 인식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선호 및 선택, 행동의 규제, 도덕적 가치, 개인적 사회적 기대, 성 역할 동일시, 자녀양육과 시민정신 측면이다(Beavers, 1976, 최현미, 1997에서 재인용) 따라서, 원가족의 구성요인으로는 자율성과 친밀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원가족에 대한 자율성과 친밀성의 인식정도는 확대가족과 부부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최현미, 1997) 가족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원가족에 대한 인식은 가족

구성원에게 자신의 가족에 대한 초기경험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경우 클라이언트 가족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표집

조사대상자집단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다. 사회복지 관련 기관은 사회복지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은 물론 대부분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관련된 인식들을 파악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표집방법은 이들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소재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을 유의표집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복지관 5개소, 가정복지센터 1개소, 장애인종합복지관 2개소, 청소년수련원 2개소,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등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들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150명과 이들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15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조사 결과 유효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사회복지사 131명, 클라이언트 134명이 분석 대상이었다. 조사방법은 우편조사 및 연구자들과 보조연구원들이 각 기관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전달하고 직접 수거하였다.

2) 주요변수의 측정

(1) 가족인식의 측정

가족인식은 가족인식을 구성하는 가족개념, 가족주의, 남녀평등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선정하였다.

첫째, 가족개념은 가족범주의 다양성 수용도를 측정한 유영주·유계숙(2002)이 사용한 척도(총 20 문항으로 구성됨)와 가족개념을 측정한 김규원(1995), 양옥경(2001, 2002)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유영주·유계숙(2002)의 문항구성은 전통적인 핵가족 가족형태부터 혼자 사는 독신남까지 다양한 형태를 제시하고 있으며, 가족범주의 다양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김규원의 가족개념은 가족개념이 전통적인가 아닌가를 평가할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가족개념은 범주적 가족개념 20문항, 기능적 가족개념 9문항 등 총 2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조사 결과 범주적 가족개념은 Cronbach's α 신뢰계수가 .8843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주의에 대한 측정은 김현옥(2002)이 가족주의 의식의 구성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한 10문항, 유영주(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우선성 4문항과 혈연중심 초혼 핵가족 이데올로기 문항 8문항을 합하여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조사 결과 가족주의는 Cronbach's α 신뢰계수가 .9036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녀평등의식은 한국여성개발원(1999)이 개발한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척도 중 가정생활 안에서의 남녀평등의식을 측정한 2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남녀평등의식검사에서 가정생활척도는 가정생활과 관련된 여성과 남성의 속성 및 역할, 권한 및 권력관계, 성차별적 가족관행과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극복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척도는 권력관계 및 제도요인 9문항, 역할요인 6문항, 가부장적 가족주의 요인 5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조사 결과 남녀평등의식은 Cronbach's α 신뢰도가 .8763으로 나타났다.

(2) 가족인식의 영향요인 측정

가족인식에 영향요인으로는 크게 인구사회학적 요인들과 자기효능감, 원가족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가족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가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로 성별, 연령, 혼인여부를 통계변수로 투입하였으며, 성별과 혼인여부는 가변수로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Sherer, Maddux, Prentice-Dunn, Jacobs, Rogers가 제작하여 박경민(1994)과 김지연(2003)이 번역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총 19개 문항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 14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어떤 행동을 시작하고 끝마칠 때까지 노력이 지속되는데 필요한 효능감을 측정하고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효능감의 총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조사 결과 자기효능감은 Cronbach's α 신뢰도가 .8085으로 나타났다.

셋째, 원가족 척도는 최현미(1997)가 개발한 원가족 척도 중에서 원가족에 대한 자율감과 친밀감 차원을 나타내는 항목들 중 원가족에 대한 자율감을 묻는 7문항과 원가족에 대한 친밀감을 묻는 5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원가족 척도는 원가족에 대한 자율감과 친밀감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원가족과의 생활에서 자율적이고,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사용한 원가족 척도는 Cronbach's α 신뢰도가 .7615로 나타났다.

4.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로 구분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고 항목별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분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전체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31	23.66	28	21.05	59	22.35
	여성	100	76.34	105	78.95	205	77.65
	합계	131	100.00	133	100.00	264	100.00
혼인 여부	미혼	77	58.78	32	23.88	109	41.13
	기혼	54	41.22	102	76.12	156	58.87
	합계	131	100.00	134	100.00	265	100.00
나이 구분	25세 미만	19	15.1	11	8.7	30	11.9
	25세 이상-30세 미만	62	49.2	16	12.7	78	31.0
	30세 이상-35세 미만	27	21.4	20	15.9	47	18.7
	35세 이상-40세 미만	11	8.7	24	19.0	35	13.9
	40세 이상-45세 미만	4	3.2	17	13.5	21	8.3
	45세 이상-50세 미만	1	.8	13	10.3	14	5.6
	50세 이상	2	1.6	25	19.8	27	10.7
	합계	126	100.0	126	100.0	252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유	44	33.6	45	33.6	89	33.6
	맞벌이 무	87	66.4	89	66.4	176	66.4
	합계	131	100.0	134	100.0	265	100.0
가족 구성	혼자 산다	17	13.5	11	8.2	28	10.8
	부부	21	16.7	13	9.7	34	13.1
	부부와 자녀	56	44.4	79	59.0	135	51.9
	한조부모/부모/자녀	5	4.0	7	5.2	12	4.6
	한부모/자녀	7	5.6	10	7.5	17	6.5
	한조부모/자녀			3	2.2	3	1.2
	기타	20	15.9	11	8.2	31	11.9
	합계	126	100.0	134	100.0	260	100.0
학력	초등학교			5	3.8	5	1.9
	중학교			9	6.9	9	3.4
	고등학교			53	40.8	53	20.3
	전문대졸	4	3.1	18	13.8	22	8.4
	대학교 졸업	91	69.5	36	27.7	127	48.7
	대학원 이상	36	27.5	9	6.9	45	17.2
	합계	131	100.0	130	100.0	261	100.0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집단 모두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성별비율은 서로 비슷하였다. 혼인여부는 사회복지사가 미혼이 58.78%를 차지하였고, 클라이언트 집단은 기혼인 경우가 76.12%로 클라이언트 집단의 기혼의 비율이 사회복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연령의 경우 사회복지사 집단에서 25세 이상 35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

자의 70.6%이나, 클라이언트 집단은 연령에 따라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19.8%로 사회복지사에 비해 높다. 반면, 두 집단의 맞벌이 여부에 대한 응답은 두 집단 모두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볼 때, 사회복지사 집단은 미혼이면서 35세 미만인 경우가 많았고, 클라이언트 집단은 기혼자와 고른 연령대로 분포되어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성별비율과 맞벌이 여부에 대한 비율은 비슷한 정도를 나타내었다.

가족구성은 두 집단 모두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경우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부부로 구성된 가족과 부부와 자녀의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61.1%, 클라이언트 집단은 전체 응답자의 68.7%를 보여 대부분 핵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한부모가족이나 한부모는 사회복지사 집단이 9.6%, 클라이언트 집단이 14.9%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학력 분포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모두 전문대 이상 졸업이고, 클라이언트 집단에서는 고졸이하가 전체 응답자의 51.5%를 차지하고 있어 두 집단의 학력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사 집단과 클라이언트 집단의 일반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혼인여부와 연령, 학력 등이며, 성별과 가족구성, 맞벌이 여부에서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가족인식 분석

(1) 가족개념

① 범주적 가족개념

어느 범주까지를 가족으로 보느냐 하는 범주적 가족개념에 대한 분석은 두 집단의 빈도를 중심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표 2> 참조), 클라이언트는 가족형태와 범주에 있어서 보다 전통적인 범주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집단에 비해 가족구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응답이 높았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와 그들이 낳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핵가족은 두 집단 모두가 가족의 범주라고 응답하고 있고, 다른 문항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에 문항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였다. 즉,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재혼으로 인한 혼합가족, 편조 부모가족, 시형관아기를 가진 미혼녀, 동성에 가족,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같이 거주하지 않는 부부 등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양 집단에서 어느 범주까지를 가족으로 보는가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에 의하면, 사회복지사가 가족의 범주로 볼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클라이언트가 가족의 범주로 볼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많았고, 개별 문항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가족범주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정도가 클라이언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그 결과 클라이언트 집단이 가족범주의 다양성에 대해 사회복지사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재혼예정인 동거가족, 공동체가족, 친척으로 동거중인 동성가족, 독신가족, 몇 세대 위의 조상들 등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양 집단이 빈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 가족범주의 수용도도 떨어지고 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독신남, 사별한 남편의 친척 여동생과 같이 동거하고 있는 미망인, 교통사고로 죽은 부부의 양가부모들, 어릴 적 친구와

한집에서 같이 사는 할머니, 애완견을 키우며 혼자 사는 할머니, 나의 조상들 등에 대한 문항에서도 두 집단 모두 가족수용도가 매우 낮으면서 동시에 빈도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두 집단간에 범주적 가족개념의 수용도 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례에서는 유사한 부분도 볼 수 있었다.

<표 2>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범주적 가족개념 비교

	문항 내용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χ^2
		빈도(%)	빈도(%)	
1	부부와 그들이 낳은 자녀	131(100.0)	133(100.0)	1.955
2	세 살배기 아들과 함께 사는 편모	128(97.7)	107(79.7)	23.324***
3	어렸을 때 자신을 입양한 노모와 함께 사는 52세의 중년 여성	126(96.2)	107(79.7)	19.462***
4	각자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데리고 재혼한 부부(아이들끼리는 서로 이복/이부 형제간임)	123(93.9)	102(76.7)	19.662***
5	입양한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과 함께 사는 노부부	130(99.2)	107(80.5)	28.202***
6	시집가서 남편을 잃은 딸과 외손자와 함께 사는 할아버지	124(94.7)	103(77.4)	16.174***
7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세 명의 중년 자매들	113(86.3)	98(73.7)	7.819**
8	정자은행을 통하여 출산한 아들과 함께 사는 미혼 여성	113(86.3)	87(65.4)	16.402***
9	한국과 미국에서 떨어져 사는 자녀가 없는 부부	98(74.8)	86(63.9)	4.090*
10	이혼한 남성과 그가 사귀고 있는 여성 혹은 그녀가 키우고 있는 전남편의 아이(이 남성은 그녀와 재혼하면 아이를 함께 키울 결심임)	79(60.3)	66(49.6)	3.301
11	계부와 그가 동거하는 여성과 함께 사는 아이(아이의 생모는 전남편인 생부와 이혼하고 현재의 계부와 재혼했으나 2년 전 병으로 사망했음)	89(67.9)	76(57.1)	3.884*
12	서울 근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6명의 성인과 12명의 아이들	67(51.1)	53(39.8)	3.621
13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사촌간의 두 남성	61(46.6)	58(42.9)	0.295
14	여성동성애 커플과 함께 사는 그들의 아이들(한 여성의 아이는 이혼한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이고, 다른 한 여성의 아이는 한때 동거했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임)	73(55.7)	42(31.6)	16.352***
15	사별한 남편의 육촌 여동생과 한집에 같이 사는 미망인	61(46.6)	56(42.1)	.439
16	2년전 교통사고로 함께 죽은 부부의 양가 부모들	52(39.7)	58(43.6)	.238
17	어릴 적 친구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77세의 할머니	44(33.6)	45(33.1)	.998
18	남편과 사별하고 애완견을 키우면 사는 84세의 할머니	35(26.7)	37(27.1)	.026
19	나와 몇 세대를 거슬러 올라간 나의 조상들	67(51.1)	64(48.1)	.382
20	연애만 하며 혼자 사는 독신남	17(13.0)	16(12.0)	.066

가족개념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의 변화를 가족의 범주로 보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개념 인식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집단에 비해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혼인이나 혈연으로 구성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에 여전히 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범주적 가족개념의 차이가 가족개념 일정영역 안에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20개 가족범주에 대한 응답 결과를 가족의 범주로 인정한 빈도수를 합한 후, 빈도평균값을 중심으로 두 집단의 응답빈도를 분석한 결과(<표 3> 참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3>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가족구성의 다양성 수용도는 사회복지사 집단이 전체 문항 중 13.21개 문항, 클라이언트 집단은 11.24개 문항을 가족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두 집단간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집단의 연령차이를 고려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유의수준 $p < 0.1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1> 참조). 따라서 사회복지사 집단과 클라이언트 집단간의 가족범주와 형태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클라이언트 집단이 사회복지사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족범주나 형태에 있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범주적 가족개념 평균비교

	집단구분	명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범주적 가족개념	사회복지사	131	13.21	3.656	231.653	3.468***
	클라이언트	133	11.24	5.430		

주 : *** $p < 0.001$

② 기능적 가족개념

기능적 가족개념에 대한 문항은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별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등 3가지 범주로 응답을 하게 하였다. <표 4>는 문항별로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로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교차분석 결과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내용은 ‘가족은 반드시 혈연적 관계로 맺어져야 한다’, ‘가족은 정서적 유대가 가장 중요하다’, ‘가족은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한 가족이라면 소득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가족이란 사회적으로 실재한다기보다 사람들의 인식에 의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에서였다. 이들 문항에 대한 <표 4>의 분석 결과를 보면,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 비해 가족의 혈연적, 정서적 기능, 경제적 기능(특히 공동관리에 대해)을 더 강조하고 있었고, 반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비해 가족의 제도적 기능을 덜 수용하고 있었다.

<표 4>의 분석결과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가족이 반드시 혈연적 관계로 맺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였다. 사회복지사는 반드시 혈연적 관계이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경우가 86.2%를 차지하였으나, 클라이언트 집단의 경우는 52.0%만이 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족은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문항에서도 두 집단이 응답빈도가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클라이언트 집단이 혈통을 가족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어 가족의 재생산 기능을 강조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사회복지사 집단은 클라이언트 집단에 비해 가족의 개념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다.

<표 4>에서 두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빈도에 있어 차이를 보이면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 비해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며, 가족내 성별분업이 권력의 반영이라는 인식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특히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인식은 해체된 가족을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이끌어내야 하는지, 불평등한 가족내 성역할 분담에 대해 어떠한 방향에서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사한다. 그리고 가족의 사회내에서의 역할과 기능 즉, 빈곤과 자본주의를 지속한다는 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집단 모두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였다.

<표 4>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기능적 가족개념 비교

	문항 내용	구분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χ^2
1	가족은 반드시 혈연적 관계로 맺어져야 한다.	그렇다	17(13.8)	61(48.0)	34.068***
		그렇지 않다	106(86.2)	66(52.0)	
2	가족은 정서적 유대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	120(94.5)	109(86.5)	4.691*
		그렇지 않다	7(5.5)	17(13.5)	
3	가족은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그렇다	16(13.0)	48(37.5)	19.870***
		그렇지 않다	107(87.0)	80(62.5)	
4	가족끼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	그렇다	51(42.1)	67(52.3)	2.593
		그렇지 않다	70(57.9)	61(47.7)	
5	한 가족이라면 소득(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렇다	25(20.7)	44(34.9)	6.234*
		그렇지 않다	96(79.3)	82(65.1)	
6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부부가족도 가족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	96(78.7)	78(68.4)	3.270
		그렇지 않다	26(21.3)	36(31.6)	
7	가족이란 사회적으로 실재한다기보다 사람들의 인식에 의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다	78(67.8)	58(50.4)	7.196**
		그렇지 않다	37(32.2)	57(49.6)	
8	가족 안에서 가사노동을 분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권력구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	79(66.9)	69(58.0)	2.031
		그렇지 않다	39(33.1)	50(42.0)	
9	가족은 빈곤을 지속화하고, 사회적으로는 노동자를 산출해 내어 자본주의를 지속시켜 주는 기초단위이다.	그렇다	38(35.8)	32(33.0)	0.183
		그렇지 않다	68(64.2)	65(67.0)	

주 : *p<0.05, **p<0.01, ***p<0.001

<표 5>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가족주의에 대한 인식 비교

번호	문항 내용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1	가족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의 부모님이 계셔야 한다.	2.17	2.66
2	가족에는 부모가 직접 낳은 자녀들이 있어야 한다.	1.98	2.68
3	아버지와 자녀들의 성(姓)은 같아야 한다.	1.99	2.70
4	형제들의 성(姓)은 같아야 한다.	2.18	2.74
5	가족들은 모두 한 집에 살아야 한다.	2.15	2.53
6	아이들은 낳아주신 부모님이 돌봐야 한다.	2.67	3.05
7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은 함께 사셔야 한다.	2.63	3.17
8	나를 낳아주신 분만이 나의 부모님이다.	1.95	2.53
9	부모와 자식은 한 몸이다.	2.36	2.67
10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출세하는 것은 곧 부모의 성공이다.	2.08	2.44
11	자식을 위해서 이혼은 하지 말아야 한다.	2.07	2.70
12	여성의 덕은 부모를 잘 모시고, 남편을 잘 내조하며, 자녀를 잘 키우는데 있다.	1.97	2.64
13	나는 가족(가문)의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32	2.56
14	나는 내 가족 중 집안 대소사에 참석하지 않는 가족에게 화가 난다.	2.56	2.70
15	나는 가족의 기둥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한다.	2.51	2.59
16	나는 가족 중 누군가가 다른 사람과 싸우면 주로 가족 편에 선다.	2.87	2.83
17	나는 가족 중 누군가가 힘들다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난다.	2.26	2.39
18	나는 내 가족들 중 누군가가 경쟁심이 없어 보일 때 화가 난다.	2.02	2.35
19	부부관계에서는 평등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남편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는 편이 낫다.	2.02	2.50
20	가족들의 일차적 생계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	2.33	2.78
21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족 내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2.27	2.76
22	자녀의 성(姓)은 어머니를 따를 수도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71	2.09

(2) 가족주의

가족주의는 가족이라는 사회집단의 이익을 중요시하는데, 개인의 이익보다는 가족의 이익을 우선하고,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일종의 집단주의라고 볼 수 있다(이광규, 1994) <표 5>와 <표 6>에 의하면, 가족주의를 구성하는 5개 하위영역인 혈연중심 초혼 핵가족 이데올로기, 가족우선성 의식, 가족집단중심 의식, 가족경계유지 의식, 가부장제 의식 모두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을 통제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두 집단간의 가족주의 하위요인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부록 표 2> 참조)).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사의 가족주의 인식이 클라이언트의 가족주의 인식과 상당부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혈연중심의 초혼핵가족 이데올로기 면에서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보다 더 가족에는 부모와 자녀가 있어야 하며 그들 모두 같은 성을 써야 하고 같은 공간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는 부모를 돌보아야 하며 부모님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사회복지사보다는 클라이언트에게 더 강했다. 이러한 결과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보다 혈연중심의 초혼의 핵가족 형태를 가족으로 보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표 6>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가족주의 의식의 차이

	집단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혈연중심 초혼 핵가족 이데올로기	사회복지사	129	2.2112	.57129	260	-7.074***
	클라이언트	133	2.7556	.66889		
가족우선성	사회복지사	131	2.1183	.56187	259	-6.542***
	클라이언트	130	2.6192	.67069		
가족집단중심주의의식	사회복지사	131	2.4631	.44448	233.160	-2.303**
	클라이언트	133	2.6216	.65235		
가족경계유지의식	사회복지사	131	2.3842	.41853	261	-2.430**
	클라이언트	132	2.5202	.48603		
가부장제의식	사회복지사	131	2.0821	.48580	234.730	-6.114***
	클라이언트	128	2.5195	.65178		
가족주의 전체 평균	사회복지사	129	2.2290	.38273	232.144	-7.595***
	클라이언트	122	2.6446	.47605		

주 : **p<0.01, ***p<0.001

가족과 개인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더 우선시 하는가를 보여주는 가족우선성과 가족집단중심 의식 또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 비해 가족원 개인보다는 가족을 우선하고 중심에 두고 있었다. 즉, 자식을 위해 이혼은 삼가야 하고 개인의 권리보다는 여성의 전통적 덕을 강조하고 자녀의 출세가 곧 부모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등 가족의 존속을 위해 개인이 희생될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복지사보다는 클라이언트에게 더 강했다. 아울러 가족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개인을 가족을 위해 기꺼이 헌신해야 한다는 의식도 사회복지사보다는 클라이언트에 더 강했다(<표 5>, <표 6> 참조).

가족과 가족외부를 구분하고 경계지으면서 자신을 가족과 동일시하는 가족경계의식 또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 비해 더 많은 경계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내 부계의식과 남성중심적 의식을 보여주는 가부장제의식도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보다 더 강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가족주의 의식의 정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사회복지사보다는 클라이언트가 보수적이고 규범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주의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사회복지실천에서 가족을 돕는 전문가와 그 도움을 받아들이는 클라이언트간에 가족주의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과연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어떤 방향의 조언과 상담을 제공하고 어떤 방향의 결정을 강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를 시사한다. 또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형성은 물론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가족개입의 정도와 방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 가족에 대해 보다 덜 전통적이고 덜 규범적이고 덜 가부장적인 사

회복지사가 자신보다 더 전통적이고 규범적이며 가부장적인 클라이언트에게 가족과 관련한 결단을 함께 내려야 할 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그러한 가족인식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남녀평등의식

남녀평등의식은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여성과 남성의 역할, 권한 및 권력관계, 성차별적 가족관행과 체도에 대한 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구성 요인은 ‘가정 내 권력 관계 및 체도에 대한 태도’, ‘가정내 남녀의 역할’, ‘가부장적 가족주의 요인’의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남녀평등의식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비해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7>, <표 8> 참조). (연령을 통제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두 집단간의 남녀평등의식 하위요인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부록 표 3> 참조)).

우선, 가족내 권력관계 및 체도에 대한 태도에서는 “이혼시 남편은 아내의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항목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클라이언트보다 사회복지사가 남녀평등의식이 높았다. 이는 결혼 중 재산의 공동명의, 집안일에서의 결정권, 처가와 시가에 대한 처우, 폭력남편에 대한 처벌, 가사노동의 분담, 성불평등적 가족체도의 폐지의 모든 측면에서 그러하였다(<표 7> 참조).

가족내 남녀평등 의식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가족내에서의 성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다. 성역할은 성에 적합한 행동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남자는 남성으로서 가져야 할 행동유형으로 남성다움을 의미하고, 여자는 여성으로서 해야 할 행동유형으로 여성다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김병찬, 1995). 본 조사결과 남녀평등의식의 하위요인 중 사회복지사(평균:3.2183)와 클라이언트(평균:2.6554)간의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난 영역이 성역할 부분이다. <표 7>에 의하면,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에 비해 전통적인 성역할 모델을 더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무양자이어야 하고, 여성은 집안일을 하면서 자녀를 키워야 하고,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더 행복하며, 여성의 일탈은 남성의 일탈보다 더 문제가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가족내 남녀평등의식을 보여주는 가장 전통적이며 결정적인 측면인 가부장적 가족주의 또한 클라이언트 집단이 사회복지사 집단에 비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 두 집단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표 8> 참조). 이들을 중심으로 한 부계혈통, 시댁중심의 사고와 행동 등에서 특히 그러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집단간에 남녀의 성별역할과 권력관계, 성역할 차이, 가부장적 가족주의 요인들 등 남녀평등의식 전반에 걸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가족을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가족에 양성평등적인 개입을 시도하는데 있어서도 장애가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가족의 성역할요인에서 두 집단이 보이는 차이는 다른 하위차원에 비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가족내에서의 성별 분업에 따른 역할수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클라이언트 집단에 대한 가족개입을 시도하고,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가족내의 권력관계, 성별에 따른 가족내 역할수행, 가부장적 가족주의에 대한 인식의 차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양성평등적인 개입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7>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남녀평등의식 비교

문항	내용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1	부부는 결혼 중 얻은 재산을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3.38	3.23
2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3.53	3.47
3	결혼한 남자는 처가쪽의 대소사를 자기집과 똑같이 챙겨야 한다.	3.61	3.43
4	아내를 때리는 남편은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3.85	3.73
5	이혼시 남편은 아내의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3.44	3.51
6	딸, 아들 구별없이 집안일을 시키겠다.	3.69	3.53
7	폐백은 양가 부모님께 모두 드려야 한다.	3.72	3.58
8	결혼한 아들이 부업일을 하는 것을 찬성한다.	3.73	3.41
9	호주제도는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이다.	3.39	3.20
10	여자의 본분은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다.	3.25	2.72
11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2.92	2.37
12	아내는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는 것이 행복하다.	3.37	2.68
13	집안 일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3.05	2.65
14	아내의 외도는 남편의 외도에 비해 더 심각한 문제이다.	3.25	2.59
15	자녀가 잘못되었을 경우 엄마의 책임이 아버지보다 더 크다.	3.48	2.92
16	아들을 낳지 못하면 여자는 시댁과 남편에게 떳떳치 못하다.	3.62	3.35
17	결혼한 여자가 친정부모를 모시는 것은 시집식구에게 미안한 것이다.	3.43	3.10
18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3.50	3.08
19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3.34	2.73
20	재산을 딸, 아들 구별없이 똑같이 물려주겠다.	3.59	3.42

주: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10-19번은 역점수 문항임.

<표 8>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남녀평등의식의 차이

	집단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권력관계	사회복지사	130	3.5949	.38187	237.569	2.515**
	클라이언트	131	3.4521	.52482		
성역할요인	사회복지사	129	3.2183	.45824	230.301	7.804***
	클라이언트	133	2.6554	.68969		
가부장적 가족주의 요인	사회복지사	129	3.5008	.47178	233.582	4.988***
	클라이언트	133	3.1368	.69167		
남녀평등의식 평균	사회복지사	128	3.4621	.33105	234.251	6.538***
	클라이언트	131	3.1332	.46833		

주: **p<0.01, ***p<0.001

3) 가족인식의 영향요인 분석

(1) 주요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가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자기효능감, 원가족 인식을 설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성별과 혼인여부, 연령을 변수²⁾로 사용하였고, 자기효능감은 개인효능감과 사회적 효능감으로, 원가족 인식은 원가족 자율성과 원가족 친밀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여부 파악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주요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연령과 주요독립변인과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사회복지사 집단에서 원가족의 자율성이 원가족에 대한 친밀성과 사회적 효능감과 개인 효능감에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65 정도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여 다중공선성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표 9> 참조).

<표 9> 주요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연령	원가족 자율성	원가족 친밀성	개 인 효능감	사회적 효능감
연 령	사회복지사	1				
	클라이언트	1				
원가족 자율성	사회복지사	-.084	1			
	클라이언트	.085	1			
원가족 친밀성	사회복지사	-.051	.652***	1		
	클라이언트	.090	.367***	1		
개 인 효능감	사회복지사	.003	.375***	.346***	1	
	클라이언트	.078	.278**	.146	1	
사회적 효능감	사회복지사	-.033	.366***	.238**	.637***	1
	클라이언트	-.067	.125	.178*	.498**	1

주 : *p<0.05, **p<0.01, ***p<0.001

(2) 가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가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위계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방정식의 유의도는 모두 유의하였으나, 추가되는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종속변수에 따라 유의미한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어서는 연령이 가족인식을 측정한 3가지 종속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변수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개념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와 남녀평등식 의식은 낮았고, 전통적인 가족주의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2) 가변수는 성별(여성=0, 남성=1), 혼인여부(미혼=0, 기혼=1)로 변환하여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표 10>에 의하면, 독립변수의 설명력 중 유의미한 변수로는 가족개념에서 연령이 유일하게 설명력이 있고, 가족주의의 경우에는 연령과 함께 원가족에 대한 친밀감이 높은 경우 가족주의 의식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남녀평등의식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낮아지지만, 원가족에 대한 자율성이 높은 경우 남녀평등의식이 높고, 원가족에 대한 친밀감이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은 낮게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원가족에 대한 친밀감을 가진다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친밀감이 성별에 따른 평등의식을 희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원가족에 대한 자율성이 높은 경우는 남녀평등의식이 높았는데 원가족으로부터 독립성을 획득하게 되는 경우 남녀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평등의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0> 클라이언트의 가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인	범주적 가족개념				가족주의				남녀평등의식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성별	-.065	-.005	-.045	-.003	.105	.087	.122	.101	-.113	-.092	-.134	-.109
혼인여부	-.398	-.032	-.453	-.036	.158	.146	.146	.135	-.086	-.080	-.076	-.071
연령	-.160	-.312***	-.149	-.290***	.019	.428***	.019	.411***	-.020	-.441***	-.020	-.460***
개인효능			-.741	-.054			.094	.080			.170	.142
사회효능			-1.045	-.101			.082	.088			-.011	-.013
원가족 자율성			-2.606	-.169			-.079	-.058			.249	.187*
원가족 친밀감			-.790	-.088			.159	.204*			-.145	-.187*
상수	17.546		31.395		1.781		1.101		3.960		3.284	
R ²	.109		.185		.271		.335		.245		.318	
수정 R ²	.084		.130		.249		.286		.223		.271	
R ² Change	.109***		.077		.271***		.064		.245***		.073*	
F	4.347***		3.350***		12.282***		6.835***		11.354***		6.736***	

주 : *p<0.05, **p<0.01, ***p<0.001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가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위계회귀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우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족개념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경우에는 설정된 변인들의 회귀방정식은 유의미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이 떨어졌다. 그러나 가족주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성별과 사회적 효능감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으며, 2단계의 변수들이 투입되었을 경우 가족주의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위계회귀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가 여성에 비해 0.213배 높게 예측할 수 있었으며, 이와 달리 사회적 효능감이 높을 경우 가족주의의식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표 11> 참조). 이러한 분석 결과는 남성 사회복지사들이 여성 사회복지사에 비해 전통적인 가족주의 의식이 강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회복지사들은 사회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가족주의 의식은 낮고 원가족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등 원가족에 대한 친밀감에

영향을 받는 클라이언트 집단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녀평등의식의 경우는 성별이 남녀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남성 사회복지사가 여성 사회복지사에 비해 남녀평등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 11>에 의한 분석 결과 사회복지사들의 가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주의와 남녀평등의식에서 성별이었고 가족주의 경우는 사회적 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즉, 가족인식에 있어 여성 사회복지사가 남성 사회복지사에 비해 가족주의 의식은 덜하고 남녀평등의식은 강하여 전통적 가족 이미지에서 더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사회복지사의 가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인	범주적 가족개념				가족주의				남녀평등의식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성별	-1.359	-.160	-1.315	-.155	.174	.196*	.190	.213*	-.326	-.419	-.322	-.414***
혼인여부	-.696	-.094	-.715	-.097	.047	.060	.037	.048	-.049	-.072	-.062	-.092
연령	-.016	-.027	-.012	-.020	.004	.070	.005	.074	-.001	-.016	.000	-.003
개인효능			-.1548	-.139			.124	.107			.126	.123
사회효능			.989	.122			-.206	-.243*			.140	.188
원가족 자율성			-.463	-.048			.017	.017			-.002	-.002
원가족 친밀감			.796	.121			.140	.204			.029	.048
상수	14.351***		14.865***		2.027***		1.779***		3.586***		2.747***	
R ²	.042		.060		.056		.130		.190		.278	
수정 R ²	.018		.004		.033		.078		.170		.235	
R ² Change	.042		.018		.056		.074*		.190***		.088**	
F	1.777		1.080		2.394		2.488*		9.437***		6.434***	

주 : *p<0.05, **p<0.01, ***p<0.001

5. 결 론

가족에 대한 실천활동은 사회복지학 역사의 초창기부터 사회복지실천 활동의 핵심에 있어 왔고, 사회복지의 다양한 대상자들 모두와 연관되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토대였다(김인숙, 2003b). 이 토대는 오늘날 “가족위기”로 묘사되는 사회적 현상 앞에서 변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가족을 돕는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실천의 대상자들인 클라이언트의 가족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며 그들을 돕는 사회복지사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은 가족중심의 사회복지실천에서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이 가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들의 가족인식이 클라이언트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해 본 적 없이 막연하게 사회복지사들의 가족인식이 정당화되어 왔는지도 모른다. 혹은 사회복지사들은 끊임없이 가족개입과 관련해 클라이언트의 가족인식과의 차이 때문에 딜레마에 직면해 왔는지도 모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가족인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가족인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는데, 그 핵심 내용과 함의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 범주에 대해서 클라이언트보다는 사회복지사가 보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가족의 범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가족인식에 대한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가족의 다양화라는 앞으로의 변화 추세를 감안하면 가족과 관련한 사회복지실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사회복지사들은 현장과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의 가족인식의 다양성과 유연성이 자칫 클라이언트의 가족인식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하는 실천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유념할 필요가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침이 기존의 많은 사례분석을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보다 전통적 가족기능에 더 몰입되어 있었는데, 이는 가족복지실천에 일정한 함의를 가진다. 예를 들어, 가족끼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녀를 확대하는 아버지를 가진 가족에 대해 반드시 함께 살아야 가족은 아니라는 사회복지사의 생각이 자녀를 그 가족에서 분리하려 할 때 딜레마가 발생한다. 클라이언트 가족의 가족기능에 대한 전통적 사고를 해체하여 사회복지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가족기능을 수행토록 할 것이냐의 문제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이 문제는 사회복지사 개인의 사고와 판단에 맡긴다기보다는 이와 관련된 사회복지 현장 사례들에 대한 추후 조사의 집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가족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인식 차이는 사회복지실천에 다양한 실천적 함의를 가지므로 이후 이러한 인식의 질적 차이에 대한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사보다는 클라이언트가 가족주의 의식이 강하고 남녀평등의식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 비해 개인보다는 가족집단을 우선시하고 혈연이나 가부장적 의식 및 가족경계의식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며, 가족내 성별 역할분담이나 권력관계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서는 양적 조사의 한계상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가족주의 의식과 남녀평등의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정도만 확인되었을 뿐 그 질적 내용까지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가진 가족주의 의식과 남녀평등 의식과 사회복지사의 가족주의 의식 및 남녀평등식이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큼 질적, 양적 차이가 있는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가족주의와 남녀평등 의식이 양 집단간에 차이가 있고 그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밝혀진 점은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의 가족주의 및 남녀평등 의식을 신중히 고려하여 실천적 개입에 임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가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성별과 사회적 효능감이 클라이언트의 경우는 연령과 원가족 인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가족과 관련한 사회복지실천에 갖는 함의는 클라이언트의 경우, 클

라이언트 가족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원가족 경험을 고려하고 원가족내에서의 자율성과 친밀감이 어떻게 조형되었는지를 파악하여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연령에 따라 가족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또한 실천개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반면, 가족을 돕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인 것은 사회복지 교육에 있어 실천 개입에 필요한 성인지적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개인이 가진 사회적 효능감이 가족인식에 영향을 주는 만큼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적 효능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 또한 시사한다.

한국 사회의 가족은 사회적 변화의 속도만큼 빠르게 내적, 외적으로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 변화과정은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이는 사회복지사나 클라이언트 모두에 적용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회복지실천의 핵심 토대인 가족을 돕는데 있어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도움을 주는 자의 가족인식과 받는 자의 가족 인식의 차이가 그것이다. 본 연구는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가족인식상의 차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양 집단간에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 차이를 실천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작업은 이러한 차이의 질적 측면에 대한 연구와 가족개입의 결과들에 대한 연구가 집적됨으로써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앞으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가족인식의 차이에 관한 양적 차이만이 아니라 질적 차이와 더 나아가 그에 기반한 실천적 지침의 기반이 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김경신 외. 1993. 가족학. 서울: 한국가족학연구회.
- 김미숙 외. 2002. 가족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 김병관. 1995. “가족의식의 연구와 연구동향”. 경동전문대학 논문집. 제4편.
- 김양희·정경아. 1999.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 개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인숙. 2003. “가족, 정치적 아젠다로 떠오르다”. 『복지동향』 62.
- _____. 2003. “가족복지 지식의 패러다임: 반성과 모색”.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03년 추계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 김지연. 2003. “여성의 지역운동 참여요인에 관한 연구-인천연대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옥. 2002. “가족주의 의식의 구성과 변화-한국사회에서의 연령집단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4(1).
- 박민자. 1995. 가족의 의미. 서울: 경문사.
- 박수현. 2003. “대학생의 가족개념 인식 및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수진. 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옥경. 2001. “가족개념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74-199.
- _____. 2002.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한국인의 복지의식 연구: 서울지역 기혼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1: 229-256.

- 양옥경·김혜영. 2001. “가족의식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방향 :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3(2): 29-55.
- 옥선화. 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가치관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진숙. 2003. “가족의 정치적 아젠다화”. *상황과복지*, 16.
- 이광규. 1990. “한국사회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5(2).
- 이영숙·박경란. 2002. “청년과 중년의 가족개념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0(10).
- 이윤선. 2000. “영구임대아파트 주민과 사회복지사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유계숙·유명주. 2002. “서울시민의 가족개념 인식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5).
- 임인숙. 1999. “미국 학계의 가족변화 논쟁”. *가족과 문화*, 11(1).
- 장하경·서병숙. 1991. “대학생의 성역할 태도 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9(1).
- 조홍식·김인숙·김혜란·신은주 공저. 2002.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 최재석. 1975. *한국농촌사회연구*. 서울: 일지사.
- 최현미. 1997. “원가족 척도 연구 : 결혼 초기 부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하은하. 2002. “가족가치관에 따른 한국인의 가족개념 인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한남제. 1985. “가족가치관의 변화”.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_____. 1987. “대학생의 가족의식”. *평화연구*. 대구: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 Beavers, W. R. 1976. “Theoretical Basis for Family Education”. in J. M. Lewis, W. R. Beavers, T. Gossett, and F. A. Phillips. New York : Brunner, Mazel.
- Drew, Eileen, 1998, “Re-conceptualising family.” *Women and Family in Europe*. London: Routledge
- 한국여성정책연구회 역, 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출판사. Kath Woodward. 1997. *Feminist Critiques of Social Policy*. 서울: 새물결.
- Wilson, Elizabeth. 1977. *Women and the Welfare State*. Tavistock Publications Ltd.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Family in Social Workers and Clients.

Kim, In-Sook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Yoo, Young-Joo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perception on family of social workers and clients. Perception of family concept, family function is changing as times passes. But social worker is facing a dilemma because of differences of the perception on family.

In order to compare between social worker and client concepts on family, this study compare family concept, familism, gender egalitarianism. Data for analysis were collected from 131 social workers and 134 clients who were purposive sampled.

Social worker's recognition of family concept is more acceptable than client's family typology, functional family concept. Analysis shows that client group more higher familism and clients have a low opinion of gender egalitarianism. Thus, social worker may have conflicted with client's family while social worker practices case management or progress family welfare services.

In order to examine the influencing factors on family perception, the defined factors were self-efficacy, family of origin perception. Controlling for sex, old, marriage on family perception were examined. There were significant effect of old, family-origin perception to the client's family concept, familism, gender egalitarianism. On the contrary there were significant effect of sex, self-efficacy to the social worker's familism, gender egalitarianism.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e difference of family perceptions between social worker and client. But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 that family social work procession or intervention will be investigated concretely.

Key words : perceptions of family, familism, gender egalitarianism.

부록

<부록 표 1>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범주적 가족개념 공분산분석(통제변인: 연령)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범주적 가족개념	공변인(연령)	299.357	1	299.357	14.541***
	집단구분	59.932	1	59.932	2.911+
	오차	5229.269	254	20.588	
전체		5859.370	256		

주 : +p<0.10, ***p<0.001

<부록 2>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가족주의 공분산분석(통제변인: 연령)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혈연중심 초혼 핵가족 이데올 로기	공변인(연령)	10.316	1	10.316	30.243***
	집단구분	5.932	1	5.932	17.391***
	오차	85.617	251	.341	
	전체	115.896	253		
전통적 가족주 의 이념	공변인(연령)	6.798	1	6.798	19.540***
	집단구분	5.468	1	5.468	15.717***
	오차	86.627	249	.348	
	전체	110.038	251		
가족집단중심 주의의식	공변인(연령)	3.070	1	3.070	10.154***
	집단구분	.062	1	.062	.207
	오차	76.179	252	.302	
	전체	80.729	254		
가족경계유지 의식	공변인(연령)	.000	1	.000	.001
	집단구분	.764	1	.764	3.645+
	오차	52.622	251	.210	
	전체	53.617	253		
가부장제의식	공변인(연령)	9.160	1	9.160	32.315***
	집단구분	3.312	1	3.312	11.682***
	오차	70.018	247	.283	
	전체	92.250	249		
가족주의 평균	공변인(연령)	5.342	1	5.342	32.509***
	집단구분	3.455	1	3.455	21.026***
	오차	39.436	240	.164	
	전체	55.478	242		

주 : +p<0.10, *p<0.05, ***p<0.001

<부록 표 3>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남녀평등의식 공분산분석(공변인: 연령)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권력관계	공변인(연령)	2.844	1	2.844	14.759***
	집단구분	.049	1	.049	.252
	오차	47.975	249	.193	
	전체	52.125	251		
역할요인	공변인(연령)	11.239	1	11.239	37.795***
	집단구분	5.723	1	5.723	19.245***
	오차	74.339	250	.297	
	전체	105.769	252		
가부장적 가족주의 요인	공변인(연령)	5.963	1	5.963	17.706***
	집단구분	2.052	1	2.052	6.094*
	오차	84.198	250	.337	
	전체	98.747	252		
가족주의 평균	공변인(연령)	5.516	1	5.516	39.551***
	집단구분	1.489	1	1.489	10.679***
	오차	34.445	247	.139	
	전체	46.820	249		

주 : *p<0.05, ***p<0.001

[접수일 2004. 1. 15 게재확정일 2004. 1. 28]